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4 pp. 361-370,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4.36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분석 연구 -혁신도시내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덕수
한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nalysis of Social Contribution A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ocused on Public Institutions in Wonju Innovation City-

Deok-Soo Lee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Ha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공헌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 사회공헌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진전과정을 살펴보고 강원원주혁신도시내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14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의 경향은 단순 기부나 후원 형태의 사회공헌보다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둘째, 일회성 단발성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일방적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social contribution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data on social contribution and the progres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in Wonju Innovation City.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nine organizations out of 14 public institution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suggested the right directio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is analysis. First, recent trends are being developed to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public interest activities rather than simple donations or sponsored forms of social contribution. Second, the synergy effect was maximized by systematically approaching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a one-time, one-off social contribution. Third, it should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the mid- and long-term by creating a social economy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rather than a one-sided social contribution.

Keywords : Social Contribution, Social Contribution, Public Interest Activity, Donate, Donate Donation

1.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환경, 인권, 부패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제적인 비판여론과 불매운동을 야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 특히 국내에서는 지방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시즌1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도심과 이전한 공공기관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Corresponding Author : Deok-Soo Lee(Halla Univ.)
Tel: +82-10-5273-0354 email: ds3550@naver.com
Received December 13, 2018 Revised January 10,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정의하면 '기업이 축적·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모든 비영리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시혜적 차원에서 비용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재는 사회와 기업의 가치를 동반 성장시키는 투자개념으로 변화되어 국민인식의 대변화를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즉 과거 공급자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공헌 활동이 지금은 수혜자 니즈(Needs)에 기초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성숙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재무적 지표 이외에 기업의 사회성, 윤리성, 환경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척도가 형성되고 있다[2].

그 결과 오늘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과거 기업이윤의 단순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자선, 기부활동 또는 준법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모색이 필요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지역사회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결핍요인을 찾아내고 그들의 니즈 또는 수요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 즉 고객(국민)은 기업의 기반이자 존재의 근거로서 기업목표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고객창조(Customer Creation)에 있고 기업이익은 기업 지속가능성의 필요조건이며 기업이익의 사회공유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지역 중 하나인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각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1 시장 환경 변화와 사회적 책임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갑질 문화 퇴출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과 함께 법률과 제도의 준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인지 가능한 폭넓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즉 기업은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한 이윤 추구는 물론이고,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공유가치 창출의 경영전략, 즉 기업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에 돌려준다는 기존의 반응적 CSR의 개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창출 활동에 일체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5, 6].

시장환경의 변화속에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7], 이들 기업들은 i)환경, 건강, 안전으로 사업의 개념을 전환함으로써 의무사항을 넘어 사업변신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ii)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새로운 수익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iii)연결과 협력으로 건강한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시혜성 나눔에서 벗어나 이타주의를 추구하고, iv)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성 보상보다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v)종업원 만족의 스펙트럼을 확장함으로써 종업원만족의 기준을 경제적 보상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vi)이해관계자에게 사회공헌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구분되며,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강제적 의무라 할 수 있고,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강제성을 초월하여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구의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9].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UNCATAD)는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기업이 비즈니스 윤리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일종의 약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OECD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규제적 환경 속에서 우위를 얻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업행동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Carroll[10]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이며, 이는 Fig. 1과 같다.

Fig. 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인 반면,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기부 및 자선활동, 지역공헌, 사회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 윤리경영, 제품안전, 여성이나 소수인종 공정대우 등이 있다.

법적 책임은 기업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책임으로 세금납부, 회계투명성, 제품안전 등이며, 경제적 책임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단위로서의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 고용 창출, 기술혁신 등이 해당된다[9].

추가적으로 신유근[11]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기업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행동의 규범적 체계'로, McWilliams & Siegel[12]은 '기업이 내부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 및 이윤추구를 떠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1.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개념과 유형

기본적으로 시민복지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었으나 점차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복지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해지면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기업이 등장하였고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9].

Table 1. The paradigm shift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apitalism Transition	Modified capitalism	Neoliberalism emerged	Capitalist crisis
Social Contribution Changes	Charitable donate-Ltd	Strategic CSR -Quantitative expansion	social innovation -Qualitative change
Subject	Supplier needs	consumer Needs	Stakeholder needs
attitude	passive Limited	Mandatory Passive	Active and active
purpose	Profit return (Tax)	Marketing, risk Mgt. fee	Create shared value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자본주의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정자본주의 태동시기에는 공급자 니즈에 맞춰 소극적, 제한적, 자선적 기부형태로 사회공헌이 진행되었으나,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지나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니즈에 맞게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회적 혁신 관점에서 질적 변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법적·경제적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금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윤리적이며 재량적인 차원에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3].

오늘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크게 기부협찬활동(현금 또는 현물 기부), 공익사업활동,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15].

기업의 기부협찬활동은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현금·현물기부, 시설·인재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비중이 큰 사회공헌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기부협찬활동은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학술연구, 사회복지, 의료보건, 환경보전, 재난구호 등이 있으며, 이 중 교육·학술연구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은 편이다.

기업의 공익사업활동은 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기부 협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배치하는 추세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공익사업활동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접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건강의학, 스포츠, 교육, 문화예술, 지역사회 발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익사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부협찬활동 외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써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으며, 이는 기부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의 대안적인 형태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직접적인 기부활동 보다 더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며, 기업 이미지제고와 함께 노사 간, 사원 간의 통합과 사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유·무형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기적으로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나 경영전략과 연계시킬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기업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예컨대 제품판매 가격의 일부분을 미리 정해진 가치 있는 운동이나 사업에 기부하는 마케팅을 의미하는 공익연계마케팅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경우 사회적으로 착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PR효과 뿐 아니라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선순환 고리가 작동할 경우 기업의 지속성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즉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재무성과는 물론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게 되며 이렇게 높아진 재무성과, 시장가치, 경쟁력 등은 다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Fig. 2와 같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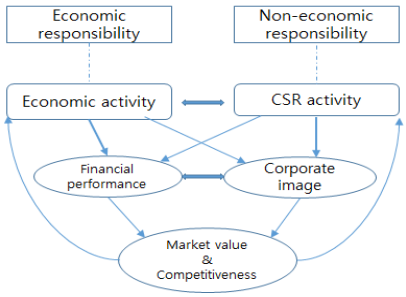

Fig. 2. Advantages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Corp. Performanc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기존의 단순기부활동→사회공헌 전담부서를 통한 공익 프로그램 기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실제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을 탐색해 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기업 현황분석

강원원주혁신도시에는 총 1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아래내용은 각 공공기관별로 2017년에 실시한 사회공헌 내용을 간략히 나열한 것이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자료미비와 사회공헌 내용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 지원하는 기관이며, 사회공헌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분류로 '건강한 국민'과 '행

복한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각각 몇 가지의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국민' 부문의 '어린이건강지킴이'사업에는 비만교실, ADHD예방교실, 학부모강좌 등이 있으며, '휴먼스토리(의식주프로그램)'에는 '의-한복입고 사진, 식-푸드 아트테라피, 주-원예치료'가 있으며, '의료사각지대 국민지원'에는 환유가족지원(치료비 지원, 건강캠프, 건강도서관), 난치병 극복의 희망전달(동화책, 희귀난치병 환우 밴드 지원)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봉사'에는 14개 단체와 협업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행복한 지역사회' 부문의 '함께 나누면 더 큰 사랑' 사업에는 낙원프로젝트(KIT지원, 빈곤가정 주거환경개선), 볼런티어(봉사+여행,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봉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농촌관광 진로체험, 음식관광코디네이터 체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프로그램에는 재정지원, 자원봉사, 판로확대, 문화소외지역(문화햇살콘서트, 나눔 콘서트, 지역문화 후원, 기관견학 등)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Boom -Up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며, 나눔문화 전파를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2.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사회공헌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핵심역량 활용',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경영'의 3가지 큰 틀로 구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역량 활용 부문 중 '사랑실은 건강천사' 항목의 국내의료 봉사로는 의료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약 1만 건의 진료와 6천만원의 물품을 후원하였고 특히 치아사랑 부문에는 총 34회 194명을 진료하였고 그중 23명에게 틀니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의료봉사로는 캄보디아 씨엠립주 보건국과 협의하여 5개 진료과목 9명의 의료진 18명의 일반봉사자가 참여하여 7일간 총 1500건의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관련 의약품을 기증하였다. 또한 '작은 공부방'을 개설하여 63개소의 다문화 저소득 가장을 대상으로 방과 후 체험교실을 통해 총 251명이 수혜를 받았다.

'지역사회와 함께' 부문은 '이동빨래차'-87세대 143건, 포항지진 이재민 빨래봉사 9일, 하루바자회-1천만원 기부, 희망풍년-미혼모 자립지원 6개소 개설하여 네일아트, 자녀성장앨범 등 지원, 독거노인 드림콜서비스-일일안부전화 1728세대 19만여건, 물품후원 및 말동무 봉사, 건이강이 나눔상자-저소득층 입원 환우 1천명 5천만원 항균상자 후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경영 부문의 '건강보험 희망풍선'사업을 통해 21만 세대의 취약계층에게 139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평창올림픽 장애인 샤워상자 2백개(26백만원)를 후원하였고, 전 임직원이 년간 2회씩 헌혈한 헌혈증을 기증하였고, 강원지역 환자 진료비 5천만원과 농촌인력난 해소 및 봉사단 인력동원비용을 지원하였고, 다문화센터 동거부부 10쌍의 합동결혼과 초록담쟁이 벽화그리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활동을 하였다. 재능기부활동으로는 집수리봉사단(도배장판 교체 등 154건)과 문화 봉사단(밴드 무료공연), 1사1촌 12개 마을과 자매결연, 2,031세대에 정기적으로 연탄배달 및 김장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2.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981년 11월 설립된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이며, 사회공헌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크게 3분야로 나누어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의료봉사로서 무료진료, 리사이클링, 해외의료봉사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의료봉사는 울릉도 등 산간 거주자와 외국인 2,098여명을 무료진료했으며, 독감예방접종은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 509명에 대해 후원했으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들을 활용하여 5,682명에게 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리사이클링은 보장구 기증 사업으로서 중장애 1급 대상자들에게 자동수동휠체어 5대(약 7백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중고부품을 수리하여 우즈벡 호레즘 재활병원을 후원(7백만원 상당)하였다. 해외의료봉사로는 베트남 평화의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의 간호사 약사를 파견하여 150명을 진료하였으며 키르키스공화국 거주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5년간 11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기부봉사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학생체험 후원, 주거환경 제공으로 나누어 사회공헌을 실시했으며, 특히 27가구에 대해 312명이 자원봉사 및 협업을 하였다. 지역사회 봉사 분야로는 나눔 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사1촌 직거래(농산물 55백만원 구입), 김장 연탄 후원(김장 446가구 2,800kg, 연탄 75가구 30,130개), 의류 모으기(자원재활용 6,750점) 형태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였다.

2.2.4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사회공헌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가지 대분류를 통해 사회공헌을 진행하였는데, 생태건강 복지 나눔 분야에서는 생태나누리 활동에 5.1억원을 들여 취약아동, 장애인, 임산부, 실버세대, 다문화 새터민, 위기청소년, 취업약자로 구분하여 자연학습체험 112회 4,734명, 무장애 탐방로 연계 자연체험 64회 3,360명, 힐링 프로그램 2회 95명, 국립공원 트레킹 등 건강증진 48회 2,022명, 한국문화체험 등 국내정착 유도 25회 1,138명, 인터넷 중독 치유 프로그램 5회 220명, 고용디딤돌 청년 프로젝트 12회 519명(채용 24명)을 진행하였다. 건강 나누리 활동으로는 2.9억원을 들여 환경부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126회에 걸쳐 아토피 환자 6,741명을 지원하였다.

밀착형 사회봉사 분야로는 재능기부와 나눔 기부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각각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생식물 증식, 문화행사 등 116회, 주택보수, 방역소독 등 주거환경개선활동 45회, 지질공원 안내 점자책 입력 봉사 등 3회, 농산물수확, 모내기 등 일손 돕기 83회, 취약계층 생필품, 밑반찬, 연탄배달 등 261회, 헌혈, 해상공원 섬 지역 의료지원 15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랑 실천으로는 천래만래운동을 통해 1,052명의 직원으로부터 18백만원을 모금하여 기부하였다.

환경교육 기부 분야로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 프로그램 35,575명), 방과 후 학교(환경해설교육 83,611명,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명), 숲 유치원(자연체험놀이 프로그램 93,917명), 주니어레인지 사업(5,685명)을 진행하였다.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분야로는 맞춤형 탐방서비스 외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봄업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2.5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방향(지역관광 성장견인, 고품질관광 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융복합 확대, 사회적 창출을 통한 균형성장)과 12개 전략과제(해외 전략시장 마케팅강화, 지역관광 참여 확대 등)를 설정하여 한국 관광을 이끌고 있으며, 사회공헌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나눔, 교육나눔, 상생나눔, 정책나눔으로 분류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관광나눔 활동의 복지관광으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17개소에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무장애여행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코스를 27곳 개발하고 무장애 여행정보DB를 1,000건 확충하여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또한 체험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특수학교 9,146명, 방과후 2,016명), 장애인(나눔여행지원 5회 181명), 어르신(여행주간 연계 여행 이벤트 2회 316명)을 후원하였다. 관광나눔 분야의 관광두레 활동으로는 주민사업체 구성활동을 통해 40개 지역 157개 주민사업체 1,145명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관광두레PD' 34명을 선발하여 지역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언론보도, 팸투어, 여행상품개발,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지원을 실시하였다.

교육나눔 분야로는 관광 ODA프로그램을 통해 코이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유학기제 직업탐방(11개 중학교 494명)을 실시하였다.

상생나눔 분야로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15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1사1병영, 1사1촌 자매마을 업무협약을 맺었고, 식목일 봉사와 자연정화, 소외계층 기부봉사, 자연재해지역 성금기부 등을 실시하였다.

정책나눔 분야로는 평창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 조직(올림픽지원TFT, 32개 해외지사), 인력(전담8명, 지원4명, 조직위 파견 4명), 예산(104억원)을 지원하고 '3D피규어응원단', 개최지역 관광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2.2.6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해방지사업과 지역진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며, 사회공헌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랑나눔, 희망나눔, 재능나눔 분야로 나누어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사랑나눔 분야로는 장애우교육 7건, 폐광지역 특성화고 취업캠프(7회)와 박람회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5회)하고 산불, 진폐 등의 피해자들과 노인가구에 필요한 헤비타트 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1사1촌 연계사업을 통해 광산촌과 복지시설을 후원하였고, 평창올림픽에 인력을 파견하고 예술품 설치를 후원하였다.

희망나눔 분야로는 폐광지역 '미래코 제로 에너지마을' 조성을 통해 주택 29개, 공공시설 11개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232KWH)했으며 '미래코 희망탄 나눔' 활동을 통해 592개 가구에 17만장의 연탄을 지원하고 52가구에 온수매트를 지원하였다. 재능나눔 분야로는 '미래코과학캠프(6회, 초등생 158명), 미래코 스칼라쉽(3회 15명), 진로체험캠프(4회 20명), 산업기술 R&D대전(44명)을 실시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을 지원하였다.

2.2.7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해 왔으며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석탄자원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부대자원 활용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실적은 다음과 같다.

나눔실천 분야로는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에게 연탄나눔(14회 550가구 62,100장 41,011천원)을 실시하였고, 지역사랑 실천 분야로는 타기관과의 협업활동을 통해 헌혈, 하천정화, 식목, 생태계보호, 연탄나눔 등을 실시하고 원주DB농구단의 입장권 11,000장을 구매하여 후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위문하고 후원금을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물적 인적지원을 하였다.

맞춤형 재능기부 분야로는 체험 및 견학(165명), 재능기부(4회), 석탄교실(미취학아동, 장애우 등 32명)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2.8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회맞춤형 분야와 나눔문화 분야로 나누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사회맞춤형 분야의 지역사랑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지원(4개대학 10명 19회), 인재양성교육(KORES 아카데미 10회-미래인재, 중소기업지원, 자원개발기능인력양성, 광산보안기능인력양성), 경제활성화(지역물품 21억원 구매, 포럼 2회, 지역행사4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2회 48명), 사회공헌활동(1사1촌, 1사1시장, 1사 1교 총 11회 2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후원(12회 19백만원), 문화활동 참여(시설개방 9회, 문화활동 5회 6백만원)를 진행하였으며, 후원 및 지원내용으로는 볼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멕시코 사업자에게 9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NGO협력사업으로 마다가스카르 지역 싸이클론 복구비로 6백만원을 후원하였고 나눔품앗이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기관을 통해 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나눔문화 분야로는 자원사랑 나눔펀드 참여인원이 총 386명, 임직원의 사회공헌 시간이 19시간으로 집계되어 년중 내내 활발하게 나눔문화를 실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9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며 사회공헌 실적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공단의 사회공헌은 기관핵심역량 분야와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7,520명), 고령자 교통안전 베테랑 운전교실 2,622명), 교통사고 심리지원 상담(3,189건), 교재 및 포스터 제작(4,200부), 안전홍보 내용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엘로카펫(6개소), 카드(1,300개), 노란발자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핵심역량의 '차별없는 세상만들기'에는 장애인 면허 취득 지원(608명), 장애인 취업(17명),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영화제 후원(2,500만원), 사회자 재능기부, 인권 교육(71명)을 진행했으며, 재능나눔 방송을 통해 재능기부(900회), 물품기부(4,000점)를 실

시하였다.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분야의 눈높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드림 방송직업체험(406명)과 8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 중고생들은 드림&세이프티 6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2,605명이 현장직업 체험하였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6만회(240만명), 투명우산(4만개), 안전교육(10만명)이 있으며 청소년 예비운전자교육은 42,840명이 이수하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2,622명)도 실시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술지원(올림픽 전용차로 안전정밀진단 109km, 수송자 온오프라인 교육 4,301명), 홍보지원(평창지역 난청지역 TBN 송출, 올림픽 기간 중 '평창으로 가는 길' 일일 19회 홍보), 인적지원(2명 파견), 경제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3.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는 9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 및 분야에 의거하여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Status by typ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Program Item		EA	ratio(%)
donate Sponsored	Donation fund	4	4.8
	Program support	9	10.7
	Support operating expenses	5	5.9
	Charity relief	6	7.1
	sub Total	24	28.6
Public interest activity	Cultural Arts Support	9	10.7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9	10.7
	Education Academic Support	9	10.7
	Community Develop.	9	10.7
	Environment protection	2	2.4
	sub Total	38	45.2
resource volunteer	Social service	9	10.7
	Professional Services	9	10.7
	Committee, consultation	4	4.8
	sub Total	22	26.2
Sum		84	100.0

Table 2에서의 건수는 원주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 건수를 집계한 것이며, 각 기관별 유형별로 어떤 항목에 대해 주로 사회공헌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 프로그램을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된 경우에도 누적횟수를 집계하지 않고 1건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발성 활동에 치우쳐 있어 누적 횟수 집계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본 연구가 사회공헌 활동의 횟수나 양보다는 질적 유형의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기부협찬과 자원봉사에 비해 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사회공헌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개 기관에서 공히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12개 항목 중 7개 항목(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지원, 교육학술지원,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전문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개 항목이 공익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체육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atu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Organizations

division	donate Sponsored	Public interest act.	resource volunteer	Sum
#1	4	4	4	12
#2	2	4	3	9
#3	2	3	3	8
#4	2	8	1	11
#5	2	4	3	9
#6	2	2	1	5
#7	2	2	3	7
#8	4	3	2	9
#9	4	4	2	10
Sum	24	38	22	84

Table 3의 기관별 사회공헌 활동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혁신도시 기관 협의회를 통해 평창동

계올림픽 지원 등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기관들이 모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사회공헌 활동유형이 유사하게 집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분석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기부행위나 후원보다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일회성 기부형태의 사회봉사 개념에서 각 기관마다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경영개념에 입각하여 사회공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공헌 방향성이 지속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의 공익활동, 상생협력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최근에 이루어져 지역내 주민이나 단체들에 대한 상황파악이 미진한 상황에서 일회성 단발성 공익활동으로 그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에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집중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지역내 사회공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로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해 일방적, 시혜성 짙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견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공기관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나 연구역량이 충분한 편이다. 이와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향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조직하고 성장시켜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때 좀 더 큰 의미에서의 사회공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한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사회공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설문조사 등 지역사회의 반응을 토대로 한 상생협력 방안이나 계량화된 사회공헌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량적인 자료 축적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I. Y. Park,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Korea Policy Studies*, Vol. 13. pp.74-87, 2013.

[2] C. S. Ahn, J. A. Son,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Demand Analysi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Korea Policy Studies*, Vol. 15. pp.19-40, 2015.

[3] J. H. Kim, M. H. Lee, H. J. Lee, J. Y. Jang, "Analysis of Community Development Effectiveness according to Community Participation Level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 Focused on Local Resident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2), pp.258-273, 2012.

[4] Cohen, William A., "Drucker on Marketing: Lessons from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usiness Thinker", N.Y.: McGraw-Hill, 2012.

[5] Porter, M. E. & Kramer, M. R.,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pp.78-92, 2006.
DOI: https://doi.org/10.1108/sd.2007.05623ead.006

[6] Porter, M. E. & Kramer, M. R., "Creating Shared Values: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89(1), pp.1-17, 2011.

[7] T. S. Jeong, G. R. Kim, G. Y. Kim, "Sustainable Growth Strategies of Global Companies: Six Sustainable Management Trend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8] Carroll, B. A.,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pp.39-48, 1991.
DOI: https://doi.org/10,1016/0007-6813(91)90005-G

[9] D. S. G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and Our Response Direct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06.

[10] Carroll, Archie B.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23(4), 1991.
DOI: https://doi.org/10.1016/0007-6813(91)90005-g

[11] Y. G. Shin,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Businesses and Society", Book Publishing Kyeongmunsa, 2001.

[12] McWilliams, A. & Siegel, D. 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eory of the Firm Financi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1), pp.117-127, 2001.
DOI: https://doi.org/10.5465/amr.2001.4011987

[13] J. S. Kim, S. M. Cho, C. H. Kang, S. H. Jeong, "A Strategic Community Contribution Strategy for the Regional Win-Win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the Case of Mine Reclamation Corp.",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18(2), pp.17-44, 2014.

[14] H. S. Cho, M. B. Shim, "An Empirical Study for Finding a Plan to Activ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ublic Organizations: Focusing on Taean Power Development Headquarters", *Korea Local Government Research*, 14(4), pp.1-32, 2013

[15] C. S. Moon, "A Study on Strategi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s a Corporate PR Campaign: Focusing o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Domestic Tobacco Company", *Advertising Research*, 15(5), pp.343-360, 2004.

[16] Y. S. Nam, "Global Trends and Regional Trend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wha Womans University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Center, 2011.

[17] J. G. Shin, "Influence of CSR on business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SMEs", *SME Research*, 33(1), pp.103-119, 2011.

[18] H. J. Cho, J. W. Moon, H. S. Jeong, "Conditions of Sustainable Growth: CS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이 덕 수(Deok-Soog Lee) [종신회원]

- 1987년 2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1997년 2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 1986년 12월 ~ 1992년 6월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992년 6월 ~ 1994년 2월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위원
- 1998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품질경영, 경영혁신, 사회적책임, 사회공헌